

植民地時代 美國文學에 나타난 Puritanism과 그 거센 波長

張 旺 祿

(英文科 教授)

The literature of Colonial America is the immediate record of that process. That is the first and fundamental job that literature does: it records the evolving consciousness of a people, formed by its environment.

—Robert Douglas Mead*

미국 식민지가 시작된 이후 18세기 전반까지를 미국문학사에서 흔히 「清敎主義時代」(Age of Puritanism)라고 일컬을 만큼 이 시기의 문학에 청교주의 사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지금은 定說이 되어 있지만, 한동안 Vernon L. Parrington 교수는 이 기간의 New England의 사상과 생활을 지배한 것은 清敎主義와 더불어 이에 맞선 自由主義(liberalism)였다면서, 자유주의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처럼 주장하여 문학비평가들로부터도 꽤 많은 호응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유민, 소지주, 자작농, 상인 등 주로 재산취득에 관심이 많은 자유주의의 Yankee와 神과 성서의 계율에 따라 살 것을 강요하는 청교주의의 Puritan이 兩者의 목적과 이상이 서로 울이 되어 짜여진 것이 당시의 생활이었다고 한 다음, 이렇게 썼다.

The Puritan and the Yankee were the two halves of the New England whole, and to overlook or underestimate the contributions of either to the common life is grossly to misinterpret the spirit and character of primitive New England. The Puritan was a contribution of the old world, created by the rugged idealism of the English Reformation; the Yankee was a product of native conditions, created by a practical economics.¹⁾

그러나 그의 주장이 史實에 기초를 두었으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文學의 主潮를 논할 때에는 문학적 유산 목록에 들어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학작품속에 자유주의 사상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청교주의 사상이 팽배한 것을 보는 마당에서는 당시의 청교주의와 문학의 함수관계에 대한 Kenneth B. Murdock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을 부인할 수 없다.

The Puritans who dominated the intellectual life of New England for the first century after

* Robert Douglas Mead, *Colonial American Literature: From Wilderness to Independenc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6), p. 2.

1) Vernon L. Parrington, *The Colonial Mind: 1620~1800*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27), pp. 3-4.

the British settlement of Plymouth and of Massachusetts Bay achieved their domination and influenced later generations largely through the spoken and written word.... Throughout history, literature,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word, had been an indispensable adjunct of Christian thought and life.²⁾

1492년에 Columbus가 신세계(the New World)를 발견한 후, 포르투갈, 和蘭, 스페인, 프랑스 등의 列強은 영국보다 수십년 앞서 신대륙을 탐험하고 도처에 식민을 시작하였다. 워낙 바다를 사랑하고 진취적인 국민인데도 영국이 그렇게 늦게 참여한 것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오랜 내전* 등으로 해서 Renaissance가 유럽대륙에서 보다 더디게 開花한 것에도 연유가 있었다. 르네상스는 知識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현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깨우쳐 여행과 항해를 즐기고 未知의 세계를 탐험하는 의욕을 돋구는 데도 한 몫을 했던 것이다. 이 획기적인 文化運動에 수반하여 1510년대부터 중부 유럽에서 북부 유럽으로 풍미한 종교개혁운동(the Protestant Reformation)은 영국에 상륙한 후, 이 나라의 종교는 물론,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1534년에 Henry 8세가 로마 카톨릭교회와 절연하고 영국국교(Church of England)를 창시한 것은 그 하나의 획기적인 표현이었다. 영국의 신대륙에의 식민은 Renaissance와 이에 따른 종교개혁운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탐험가들은 주로 북미대륙에 식민을 기도하였으나 처음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 기획자들 중에서 특히 유명한 사람은 Walter Raleigh였다. 그는 그가 탐험한 Florida 북쪽 일대를 Virginia라고 명명하여 “Virgin Queen”인 Elizabeth 1세에게 바쳤다. 그는 현재의 North Carolina주 Roanoke섬에 식민을 시작했으나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Spanish Armada)와 해전(1588)을 벌이기 위하여 선박들이 동원된 관계로 이 섬에 대한 보급이 중단되었으며 1591년에 그 섬에 돌아와보니 영국인은 한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소위 “Lost Colony”이다. Trafalgar 海戰에서 스페인 해군을 격멸시키고 해상의 패권을 잡은 영국은 산업·교육·외교면에서 공전의 발전을 했다. 뿐만 아니라 文學史上 “Elizabethan Age”로 불리우는 찬란한 Renaissance문화의 꽃**을 만발케 한 Elizabeth여왕이 1603년에 서거하자, Scotland왕 James 6세가 영국왕 James 1세가 되었다. 열강이 신대륙 진출에 선수를 친 것에 자극을 받아 런던의 상인들은 王權神授說을 내세우는 James 1세를 추켜서 植民會社 설립의 인가를 얻어 냈다. 이렇게 설립된 London Company는 147명을 태운 3척의 배

2) Kenneth B. Murdock, *Literature & Theology in Colonial New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p. 1.

* 장미전쟁 (the Wars of the Roses, 1455~1485).

** Shakespeare가 *Hamlet*(1602)에서 “What a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y! in form, in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II, ii, 317)라고 한 말은 특히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르네상스의 人本主義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를 Virginia로 보냈는데 풍랑과 우회 때문에 4개월만인 1607년 늦봄에야 105명만이 Virginia 해안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江 어귀에 마을을 건설하고 James 1세의 이름을 따서 James강, Jamestown으로 불렀다. 이들의 대부분은 목수, 대장장이, 노동자를 포함한 하층계급 사람들 아니면 상인, 투기꾼들이었지만, 항해자이자 문필가로서 이미 이름이 알려진 27세의 Captain John Smith를 비롯하여 귀족, 성직자 등 몇몇 두드러진 사람들도 6,7명 끼어 있었다. 그들은 우선은 이 멋진 新世界가 “Heaven and earth never agreed better to frame a place for a man’s habitation.”³⁾임에 환성을 질렀으나 곧 온갖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확천금의 꿈은 무산되고, 그들이 애써 재배한 담배의 수출마저 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식민지를 확대해나갈 첫발판을 구축했다.

Captain John Smith는 이 Jamestown Colony의 현지에서 쓴 그의 경험담을 본국에 돌아가서 출판하였는데 *A True Relations of such Occurrences and Accidents of Note as Have Happened in Virginia...**(1603) 같은 책은 본국인들에게 현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식민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었다. 후년에 또 그는 New England에 탐험항해를 하고 다시 쓴 *General History of Virginia, New England and the Summer Islands*** (1624), 그후에 또다시 낸 *Advertisements for the Unexperienced Planters of New England or Anywhere* (1631) 등은 모두 북미로의 이민을 권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과장도 마다하지 않는, 이를테면 광고문학이었다. 그러나 그가 초대 총독으로 있던 Virginia에서 일단 귀국할 때까지 첫 13개월간의 생활을 그린 *A True Relation of Virginia*는 그 寫實的(graphic)인 필치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들에 대한 소박하고 생생한 설명과 동시에 그들이 겪은 온갖 어려움을 서술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을이 인디언에게 습격당한 이야기며 식민지인들 사이의 분별없는 싸움이 神의 노여움을 사서 천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썼다. “God being angry with us plagued us with such famine and sickness that the living were scarce able to bury the dead.... As yet we had no houses to cover us; our tents were rotten, and our cabins worse than nought...”***

그는 당대의 다른 많은 항해 탐험가들처럼 신대륙의 개발의 필요성과 그 주민 사이에 기독교문명을 전파시킬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宗教의 이상과 帝國의 이상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었다. 오히려 양자의 결합에서 그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 것 같다. 그의 “A Description of New England” (1616) 중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3) Moses Coit Tyler,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1607~1783*, ed. Archie H. Jon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 3.

* 題名이 너무 길어서 보통 *A True Relations of Virginia*로 略稱한다.

** The Summer Islands는 오늘의 Bermuda 섬.

*** Ibid., p. 8.

Who can desire more content, that hath small means; or but only his merit to advance his fortune, than to tread, and plant that ground hee hath purchased by the hazard of his life? If hee have but the taste of virtue and magnanimitie, what to such a minde can be more pleasant, than planting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his Posteritie, gotte from the rude earth, by God's blessing and his owne industrie, without prejudice to any? If hee have any graine of faith or zeale in Religion, what can hee doe lesse hurtfull to any: or more agreeable to God, than to seeke to convert those poore Savages to know Christ, and humanitie, whose labors with discretion will triple requite thy charge and paines?⁴⁾

Pearce 교수는 이같은 향해 탐험가의 “union of spirituals and temporals”의 사상을 “a Renaissance obsession”이라고 불렀다. Elizabeth朝와 Stuart朝의 향해자들은 신대륙을 개척하여 진보와 질서와 종교와 제국을 동시에 扶植하는 데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흥분한 어조로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정신의 발로라는 것이다.⁵⁾

Captain John Smith의 저작물은 신대륙을 본국에 소개한 보고문서라는 점에서 식민지 문학의 하나의 전형적인 장르의 선구였다. Smith에 뒤이어 Alexander Whitaker 목사의 *Good News from Virginia* (1613)를 비롯하여 Virginia를 소개한 글이 적지 않다. Smith의 현지 보고는 Elizabeth여왕시대의 향해문집인 Richard Hakluyt의 *The Principal Navigations* (1589, 1598~1600)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환영되었다. 이런 종류의 르포타아지(reportage)는 John Hammond의 *Leab and Rachel; or The Two Faithful Sisters, Virginia and Maryland* (1656), George Alsop의 *A Character of the Province of Maryland* (1666), William Penn의 *A Letter from William Penn* (1683), Robert Beverley의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Virginia* (1705, 1722) 등 각지의 것이 있고 Smith의 것 이후로 모두 신세계의 아름다운 자연과 살진 토지의 혜택이 있는 지상낙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세계를 본국에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그런데 Virginia와 기타 남부지방에서의 현지보고가 많았던 것은 본국과의 종교적·정치적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이며 이와 반대로 New England에 관한 것이 적었던 것은 이 지방이 영국 식민지이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독립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같은 교파가 이주해 오는 것은 환영했으나 다른 교파는 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보고문학이 적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문학의 상당한 부분은 New England에서 올린 신앙의烽火를 구세계에 알리고 구세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人本主義, 美에 대한 이교도적인 사랑, 知的인 탐구심은 Dover해협을 건너오자 그것에 새로운 정신적인 진지성이 가미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르네상스는 개신교 종교개혁운동에 의해 길게 채색되었다. 그것은 예술가가 종교에 눈을 돌린

4) E. Arbor & A. Bradley, eds., *Travels and Works of Captain John Smith*, 2 vols. (Edinburgh, 1910), vol. 1, p.208.

5) Roy H. Pearce,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New York: Rinehart & Co., 1958), p. 3.

적지 않은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1611년의 欽定聖書(King James Bible), 17세기의 기도서, John Donne, Jeremy Taylor의 설교, Marvell의 詩, Milton의 서사시 등은 美에 대한 르네상스의 환희가 종교적 진리에 대한 개신교 개혁자의 종교적 열성과 혼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17세기 영국에서 神學이 다른 분야의 학문에 못지 않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한 르네상스의인 호기심은 행동인을 신세계 탐험에 내보냈듯이 지식인을 심리학, 과학, 철학, 전기에 못지 않게 종교의 연구에도 열을 올리게 했다. 17세기가 영국종교문학의 위대한 시기가 된 것은 실제로 이 기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enry 8세때 영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이탈한 것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였으며 실제로 영국 개신교의 형태와 신조가 진지한 문제로 크게 표면화한 것은 Elizabeth 朝부터 17세 말에 걸쳐서였다. 教義와 儀式에 치중하는 High Church의 國教徒들(Anglicans)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대폭 그대로 준수했고, 온건파 국교도들은 급진적인 개신교도처럼 성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장점도 받아들여 절충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급진적인 개신교도들은 로마교회의 냄새가 나는 것은 모두 淨化(purify)하고 오직 성서만이 영국 개신교의 모든 형태와 신앙을 결정해야 한다고 맹렬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후자가 이른바 淸教徒들(Puritans)인 것이다. 그런데 영국교회의 主教들이 영국 국민들이 한결같이 영국 국교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1604년에 James 1세로 하여금 청교도들에게 "I shall make them conform themselves or I will harry them out of the land."라고 포고케함으로써 일부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또 그들이 New England의 식민사업의 主役을 하게 되므로 Renaissance와 영국의 Protestant Reformation의 연관성에 비추어, 미국식민지는 兩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620년, Mayflower 호를 타고 영국 Southampton 항을 떠나 오늘의 Massachusetts 주의 Cape Cod에 이르는 Pilgrim Fathers*는 청교도 중에서도 「분리파」(Separists)**였다. 사실상 그들은 Plymouth에 상륙한 102명 중 41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물론 이 사람들이 이 移民船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원래 런던 북쪽의 Scrooby 마을에 살던 가난한 농민들로서 영국 교회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불복하고 이탈한 청교도들이며, 그로 인한 억압을 못참아 때를 지어 본국을 떠나 和蘭에 이민갔다가, 자손들이 和蘭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새 땅에

* Mayflower호에 뒀던 분리파 청교도들을 처음으로 "pilgrims"라고 부른 것은 William Bradford인 바, 그는 청교도들과 여타 인물들을 구별하여 "saints"와 "strangers"로 구별하기도 했다.

** Perry Miller는 그의 *The American Puritans*에서 분리파 청교도들을 가리켜 그들이 청교도 중에서도 골수분자라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y may well be called the purest of the purifiers. The heart and soul of that disposition was its intense devotion to the Bible, to the letter and the spirit, to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the New, and an absolute dedication to performing in this life what seemed the will of God."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대망을 안고 다시 그 나라를 떠났던 것이다. 열성적인 청교도로서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神의 섭리에 따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Pilgrim Fathers의 중심인물이며 Plymouth Colony의 제 2대 총독이 된 William Bradford (1590~1657)가 남긴 역사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체험기록 *The History of Plymouth Plantation* (一名, *Of Plymouth Plantation*)의 도처에 나타나 있으며 그 한 예를 그들의 배가 아직 대서양 한가운데 있을 때 뱃멀미하는 선객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볼 수 있다.

And I may not omit here a special work of God's providence. There was a proud and very profane young man, one of the seamen, of a lusty, able body, which made him the more haughty; he would always be contemning the poor people in their sickness and cursing them daily with grievous execrations; and did not let to tell them that he hoped to help to cast half of them overboard before they came to their journey's end, and to make merry with what they had; and if he were by any gently reprov'd, he would curse and swear most bitterly. But it pleased God before they came half seas over, to smite this young man with a grievous disease, of which he died in a desperate manner, and so was himself the first that was thrown overboard. Thus his curses light on his own head, and it was an astonishment to all his fellows for they noted it to be the just hand of God upon him.⁶⁾

Pilgrim Fathers는 그들의 배가 Cape Cod에 도착한 11월 11일에, 앞으로 그들이 건설할 Plymouth Colony의 정부의 기본법으로 삼기 위하여 Mayflower Compact(메이플러워 盟約)을 제정했다. 그것은 당장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非清教徒 “strangers”를 통솔하고 새로운 질서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위의 에피소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 중엔 교양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식민회사와의 年期雇傭契約에 의한 돈벌이가 主目標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그들은 이미 船上에서 번번이 소란을 일으켰었다. 그래서 그 맹약은 「神과 우리 서로의 앞에서 더 훌륭한 질서로써 생존을 유지하고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숙하게 계약을 맺고 단결하여 하나의 民間政體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했다. Parrington 교수가 “the principle of a democratic church and the principle of a democratic state”⁷⁾라고 부른 이 맹약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그들의 입법과 행정의 적부심사 기준은 「식민지 전체의 이익」(the general good of the Colony)이라고 했고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당연히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명문화한 점이다.

이 맹약을 기초하는 데도 주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 Bradford는 Pilgrim Fathers의 상륙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6)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 ed., Samuel Eliot Morison (New York, 1952), p. 58.

7) Parrington, *The Colonial Mind*, p. 17.

Being thus arrived in a good harbor, and brought safe to land, they fell upon their knees and blessed the God of Heaven who had brought them over the vast and furious ocean, and delivered them from all the perils and miseries thereof, again to set their feet on the firm and stable earth, their proper element.... But here I cannot but stay and make a pause, and stand half amazed at this poor people's present condition; and so I think will the reader, too, when he well considers the same. Being thus passed the vast ocean, and a sea of troubles before in their preparation..., they had now no friends to welcome them nor inns to entertain or refresh their weatherbeaten bodies; no houses or much less town to repair to, to seek for succour.... And for the season it was winter, and they that know the winters of that country know them to be sharp and violent, and subject to cruel and fierce storms, dangerous to travel to known places, much more to search an unknown coast. Besides, what could they see but a hideous and desolate wilderness, full of wild beasts and wild men—and what multitudes there might be of them they knew not... for which way soever they turned their eyes (save upwards to the heavens) they could have little solace or content in respect of any outward objects. For summer being done, all things stand upon them with a weatherbeaten face, and the whole country, full of woods and thickets, represented a wild and savage hue. If they looked behind them, there was the mighty ocean which they had passed and was now as a main bar and gulf to separate them from all the civil parts of the world.... What could now sustain them but the Spirit of God and His grace?⁸⁾

Plymouth 식민지 건설사업은 예상 이상으로 고난이 극심하여 *Of Plymouth Plantation*의 첫 몇 장은 “trouble,” “trial,” “travail,” “difficulty,” “danger” 등의 말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첫겨울에 酷寒과 주택의 부족과 질병으로 그들이 半 이상이 죽고 남은 사람은 50명도 못되었다. Bradford에 의하면 초기엔 불평과 반항이 없지 않았으나 총독과 대다수 사람들의 지체와 인내심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에 의해 진정되었다.

Bradford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총독으로서 본국 정부 내지 투자자들에게 식민과정과 문제점을 전달할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과업을 후세를 위해서 기록에 남길 사명감을 느낀 때문이기도 했으나 또한 그들의 사업에 대한 神의 은총에 감사하는 표시로서였다. 그들은 神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인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 준 초기 청교도의 목적의식과 근면성과 공정성, 사회의식, 실천성, 정의감과 召命感—이런 특질이 모두 미국인의 국민성에 깊이 뿌리박게 된 것이다. Walter F. Taylor는 이 책이 비록 “history”(「實話」라는 뜻도 됨)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17세기 미국문학의 고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내용과 문체에도 언급하고 있다.

Though the obscure Pilgrims never made such a great figure in American history as their later neighbors at Massachusetts Bay, their history as written by Bradford comes near being the

8) *Of Plymouth Plantation*, pp. 61-63.

literary classic of the American seventeenth century. The situation of civilized people struggling with a savage environment has proved perennially attractive in literature; consequently, despite many an arid stretch, Bradford's history abounds in material of rich human interest. And the story is admirably told, —told with a biblical simplicity that rises at times to restrained and solemn eloquence.⁹⁾

1630년에 1,000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Arabella 호가 이끄는 3척의 船團으로 대거 이주하여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Massachusetts Bay Colony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Plymouth에 비하면 땅도 비옥하고 하천도 많아서 식민이 비교적 빨리 진척되었으나 그래도 첫째 여름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청교도들은 이를 神의 노여움으로 간주하고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번번히 기도회를 갖고 神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엄숙히 다짐하곤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들이 New England에 이민해 온 것은 영국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개혁의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교회와 신성한 공화국(the Holy Commonwealth)을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이 점에서 그들은 Pilgrims와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들이 數的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부유했고, 목사·의사·법률가 등의 고소득직업을 가졌거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Pilgrims와 대조적이다. 그들은 모두가 그들의 총독 John Winthrop이나 목사들만큼 신앙심이 깊지는 못했으나 식민지 통치는 보다 더 능률적이다. 그런 까닭으로 후년에 Plymouth Colony를 병합하고 New England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양쪽 식민지가 공동으로 신봉하여 동지의식을 갖게 한 Puritanism은 독일의 Martin Luther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으뜸가는 지도자가 된 瑞西 Geneva의 John Calvin (1509~1564)의 神學 Calvinism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神은 절대적인 지배자이다. (2) 神은 全知者이므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豫定說(predestination). (3) 神은 인간에 대해 매사에 賞罰을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낸다—攝理(providence). (4) 神은 자비에 의하여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神의 은총에 의해서이다—選定(election). (5) 아담의 타락 아래로 인간은 그 조상의 죄를 안고 태어났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原罪(natural depravity 또는 original sin).** (6) 죄는 인간 각자에 내재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것은 歸依하는 것이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歸依(conversion). (7) 神意는 성서에 계시되어 있다.*** 이것이 실생활에

9) Walter F. Taylor, *A History of American Letters* (New York: American Book Co., 1936), pp. 6-7.

* 그들은 속칭 세 가지 自由를 얻기 위해서 “the Promised Land”에 왔다. 그것은 “freedom to worship God as seemed best to them, freedom to earn a good living, and freedom to build an ideal commonwealth”였다.

** *The Scarlet Letter*의 “Conclusion”에 “We are sinners all alike.”라는 말이 나온다.

*** 이 教義를 흔히 TULIP이란 略字로서 요약하기도 한다. 즉,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ence of the saints이다.

적용된 결과로서 (1)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神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神과의 계약(covenant), 그리고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계약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 (2) 정치에는 교회출석, 오락, 의복, 일상사, 직업, 물가 등 온갖 분야가 포함되며 다른 종교를 믿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3) 정치와 종교는 하나이며 불가분이다.

위에서 神과의 계약이란 청교도들의 選民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Norman Grabo 교수는 “Bradford was also a profoundly religious man thrust providentially into a role of leadership to God’s favored people.”¹⁰⁾이라고 하여 그에게 選民意識이 있었음을 시사했고 Winthrop 역시 그가 이끄는 移民團이 舊約의 選民 이스라엘인의 the Exodus의 “type”(原型)을 따른다고 믿었다. Bradford가 *Of Plymouth Plantation*을 낸 이후로 거의 모든 청교도들이 New England를 그리고 신대륙을 “Wilderness”(황야)라고 부른 것도 구약에 모세(Moses)의 막사(tabernacle)를 교회의 原型으로 여긴 그들의 發想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들은 New England를 the Exodus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인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Canaan)에 갈 때에 지나간 아라비아 사막 지방(wilderness)에 비긴 것이다.

정치와 종교를 일체시킨 「神權政治」(theocracy)는 교구별로 회중에 의한 조합을 형성케 하고 그들끼리 의논해서 政敎의 문제를 처리케 했다. 그래서 이 「조합교회」(Congregationalism)가 국교(the state religion)가 되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회중의 토의에 의하여 운영하는 원칙이 세워졌고, 사회는 전의 청교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즉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여 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神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의 발동이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는 가차없이 추방되었다. 그래서 청교도 사회는 그 구성원이 원하건 않건 간에,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有機體였다. Miller 교수는 이처럼 종교와 정치 양면에서 New England를 지배한 청교주의 土着化의 연유와 그 전통의 뿌리깊은 영향력을 재조명해 준다.

But the peculiar isolation of the New England colonies—the homogeneous people, the sparse soil, the climate, the economic struggle—quickly made these Protestants a peculiar people. Because these societies were tightly organized, and above all because they were a highly articulate people, the New Englanders established Puritanism—for better or worse—as one of the continuous factors in American life and thought. It has played so dominant a role because descendants of the Puritans have carried traits of the Puritan mind into a variety of pursuits and all the way across the continent. Many of these qualities have persisted even though the original creed is lost. Without some understanding of Puritanism and that at its source, there is no understanding of America.¹¹⁾

10) Norman Grabo,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Henning Cohen, ed., *Landmarks of American Writers*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USIS, 1970), p. 7.

11) Perry Miller, ed., *The American Puritans: Their Prose and Poetry* (New York: Doubleday & Co., 1956), p. ix.

Massachusetts Bay Colony의 초대총독인 John Winthrop (1588~1649)은 상류가문에 태어났고 Cambridge 대학 출신이며 변호사 경력에 있는 청교도로서 계속해서 총독에 선임되었다. 그는 또 長老였고 神權政治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그의 主著 *The Journal*(日誌)에서 神權政治의 계약(covenant)에 언급하여, “The covenant between you and us is the oath you have taken of us, which is to this purpose, that we shall govern you and judge your causes by the rules of God’s laws and our own, according to our best skill.”¹²⁾ 라고 씀으로써 그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는 또 이보다 앞서 쓴 일기에서 사소한 일에도 “a thing worthy of observation”이라면서 神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청교도의 태도가 나타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아들의 서재에 그리스語의 성서와 詩篇과 祈禱書가 한 권으로 묶인 책이 있었는데 이 방안에 곡물이 있었던 관계로 쥐들이 들어와서 기도서 부분만을 한장도 빼놓지 않고 모두 쏘아 먹어버린 것을 발견했다면서, 기도서는 영국의 國敎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교회에 대한 神의 비판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주목할만한 사건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December 15, 1640.] About this time there fell out a thing worthy of observation. Mr. Winthrop the younger, one of the magistrates, having many books in a chamber where there was corn of diverse sorts, had among them one wherein the Greek testament, the psalms and the common prayer were bound together. He found the common prayer eaten with mice, every leaf of it, and not any of the two other touched, nor any of his books though there were above a thousand.¹³⁾

Winthrop은 1630년부터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까지 政務에 바빠서 자주 끊기긴 했으나 계속 日誌를 썼다. 그래서 당시의 식민지 사정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테면 역사, 신학, 정치, 경제, 일상생활, 神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하면 理想, 논쟁, 고난 등 당대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일례로서 먼저 인용한 날짜의 日誌 속의 그의 自由論에도 청교도 냄새가 물씬하다. 즉 그에 의하면 자유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고난 자유」(natural liberty)와 「시민의 자유」(civil liberty)인 바, 전자는 악한 사람도 짐승도 갖고 있는 자유로서 방자와 악으로 인도하며, 후자는 神과 인간의 계약에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적이며, 그것은 “a liberty to that only which is good, just, and honest”이다. 또한 이 자유는 권위자에 복종함으로써만 유지되고 행사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자유와 같은 것이며, 여자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면서도 느끼는 자유와 같은 것이다.¹⁴⁾

12) John Winthrop, *The Journal, July 3, 1645*, from Pearce,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p. 50.

13) Miller, ed., *The American Puritans*, p. 41.

14) Pearce,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p. 51.

神權政治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神學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1636년에 Boston에서 Charles강 건너편의 Cambridge에 Harvard College가 창립되어 New England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학문이 존중되어, 음악과 韻文을 반드시 거부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實用性있는 교육이 중요시되었다. 인간의 구원이 神意에 의해서 豫定되고 변영도 행운도 모두 神의 뜻이므로 人間事의 자상한 기록을 남기고 그 속에서 神의 섭리의 손길을 읽으려고 했다. 그 결과 New England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histories), 일기(diaries), 일지(journals), 노트(note-books), 자서전(autobiographies), 전기(biographies), 설교집(sermons) 등을 써서 남겼다. 한편, 구원도 파멸도 행복도 불행도 이미 神에 의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멸도 불행도 별로 동정을 받지 못했고 수단방법의 옳고 그른 것도 문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부정확한 방법으로 致富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멸이 따르지 않을 때엔 그것은 神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Harvard College를 창설한 청교도들이 미국역사상 최초로 노예 무역선 “The Desire”號를 건조하여 노예무역의 主役이 되는 것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합의할 수 있는 동안은 神權政治(theocracy)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信敎의 自由가 없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했다. 목사들 자신 사이에서도 異見이 나와 그 반체제인사에 박해를 가하는 사례가 일어났다. Salem의 목사 Roger Williams (1603~83)는 인디언의 말을 기록하고 그들의 마을에서 보고들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백인들보다 더 선량하고 도덕의식도 강하다면서 그들을 옹호한 *A Key into the Language of America* (1643)에 이어, 사회의 제약이 개인에 미치는 것은 「몸과 재산과 외적 상태」에 한정되어야 하며 내적 상태, 양심, 의견은 어떤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정신의 자유를 옹호하고, 시민생활을 관리하는 정부가 종교상의 이유로 시민을 처벌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The Bloody Tenet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1644), 그 밖의 저서를 통해 theocracy에 반대하는 이론을 폈다가 추방명령을 받고 Rhode Island에 가서 동지들과 함께 식민지를 수립하여 Providence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침례교도(Baptist)가 된 그가 Quaker교도를 호되게 비난한 「굴에서 파낸 조오지 폭스」(*George Fox Digg'd out of His Burrowes*, 1676)를 낸 것은 청교주의의 편협성을 비판한 그가 자신의 편협성을 드러낸 셈이다.

또 여성으로서의 처음으로 神權政治에 叛旗를 들었다가 Williams처럼 Massachusetts에서 추방된 Anne Hutchinson (c. 1591~1643)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로워진」(justified) 인간에게 「聖靈」(Holy Spirit)이 깃들어 있으므로 각자가 자기 내부에 있는 영혼의 소리에 충실하기만하면 행동면에서 성도(saint)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Calvinist의 “unconditional election”와 “irrisistible grace”를 공격했다. 일종의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이었는데, 당시 그 의견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은 청교도의 질서를 질곡으로 느끼는 感性이 청교도사회 내부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녀는 1637년에 추방된 후 Portsmouth에 가서 식민지촌 밑들고 그 후 뉴욕州로 이사 갔다가 가족과 함께 先住民에게 물살되었다. 특히 여자가 청교도체제에 반대주장을 내세웠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이것은 후년에 Nathaniel Hawthorne의 *The Scarlet Letter*의 여주인공을 둘러싼 主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들 외에도 웨이커교도(Quakers), 침례교도(Baptists) 등이 박해를 받고 추방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게다가 식민지의 생활이 전보다 풍요해지자 종교보다도 實利에 관심이 더 큰 백성이 많아지는 추세가 일어났다. New England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選民」이라고 할만한 사람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되었고 또 그들 小數派는 관리이거나, 대의원 선거권을 가진 「市民」(citizens)이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단지 「住民」(inhabitants)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이 信仰을 核으로 하는 청교도 사회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住民」의 신앙심이 가난했던 시절보다 덜해지는 것 또한 자연의 추세였다. 한편, 청교도들이 非淸教徒와 反體制者들을 박해하고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本國인 영국에 청교도의 공화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 때까지였다. 1660년에 王政復古가 있었고 그후 Charles 2세가 1664년에 위원회를 New England에 파견하였다. 이 위원회가 現地の 정부와 충돌하여 그 결과 1684년에 Massachusetts Bay Colony의 認可가 취소되고 이 땅은 英領 뉴잉글랜드(Dominion of New England)가 되었고 Plymouth, Maine을 포함하여 國王代理의 총독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神權政治는 안팎으로 정세변동으로 인한 쇠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데, Richard Mather (1596~1669)가 1662년경 「불완전한 계약」(The Halfway Covenant)을 기초한 것은 영국에서 청교도혁명이 실패한 후 시대의 추세에 맞춘, 청교도로서는 매우 관용스러운 양 보였다. 그것은 異端者의 자녀에도 세례를 인정한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아들 Increase Mather (1639~1723)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장기간 그 대학의 학장직에 있으면서 저서로는 「뚜렷이 나타난 神의 섭리의 기록에 관한 에세이」(An Essay for the Recording of Illustrious Providences, 1684), 「악령에 관한 양심의 사례」(Cases of Conscience concerning Evil Spirits, 1693) 등이 있다. 후자는 바로 前년에 보스턴에서 가까운 Salem에서 수백명이 여자마법사의 혐의로 체포·고문·부욕되고 그 중 20명이 사형에 처해진 「세일럼의 마법재판」(Salem Witchcraft trial)과 관계가 있다. 즉, Salem에서 疫病이 돌자 그의 아들 Cotton Mather 등이 잘 낫지 않는 그 疫病이 非淸教徒인 여자마법사의 탈을 쓴 악령의 소행이라고 설교함으로써 비청교도를 박해한 그 악명높은 재판의 불씨를 만들었다. Increase Mather는 위의 책에서 여자마법사를 가리내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요괴스러운 증거(spectral evidence)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두 경성인의 증인이 필요하다고